

한국IT리더스포럼 · 정기조찬회

노준형 정통부 장관 · 남중수 KT 사장 강연



·… 협회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 사무국은 4월 정기 조찬회를 4월 19일 오전 7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4월 조찬회에서는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이 ‘2006년 정보통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노준형 장관은 강연에서 “IT839 등 정통부 정책 기초를 승계 하고 정치·금융·노동·국방·건설 등 IT산업 외의 분야에 대한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강연을 전개했다.

노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이 매우 컸지만 다른 분야의 동반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장에 한계가 왔다”고 지적하고 “IT산업이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려

면 정치·금융·노동·국방·건설 등 외적인 분야의 IT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IT외적인 부분의 IT화를 통해 전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끝으로 “새 u-IT 839 정책의 특징은 소프트웨어의 보강”이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반드시 도전해야 하고 이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만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대의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다”고 설파했다.



·… 사무국은 또한 3월 정기조찬회를 3월 21일 오전 7시 30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남중수 KT사장이 ‘IT빅뱅과 IT코리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남중수 사장은 강연에서 “5년 후인 2010년께 본격적인 IT빅뱅이 시작된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디지털세대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자체를 인식하는 계층”이라며 “이들이 본격적인 구매력을 갖게되는 2010년부터 IT빅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사장은 “IT빅뱅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간 융합에 대비한 규제 제도를 정비하여

IT분야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남 사장은 IPTV 서비스 지연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외국의 주요 CEO 들은 한국에서 IPTV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문의 :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 (전화 02-580-0534)

IHD 일본취업IT과정, 현지 기업 취업률 82%



협회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IHD)가 시행 중인 '일본취업IT인력연수' 과정이 4월 현재까지 82%의 일본현지 기업 취업률을 기록하며 일본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인력배출 교육과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일본취업IT인력연수'는 지난 2001년 정보통신부 지원과정을 시작으로 200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과정까지 총 7기 과정을 시행 중이며, 수료생 556명 중 460명(국내 취업 제외)이 일본현지 IT기업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이 과정이 청년미취업자 해외취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과정 개설 전 센터가 운영 '한일IT인재교류협의회(회장 (주)마이넷그룹 모리다 요이치)의 일본 회원사 대상 사전 채용 인력 수준 조사를 시행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총 10개월간 1600시간 이상의 실무 일본어 및 IT교육, 철저한 학사관리 등으로 글로벌 IT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정부 지원으로 6월19일까지 제8기 교육생(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졸 미취업자 및 07년도 2월 졸업예정자 대상)을 전공에 관계없이 30명 모집한다.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itjapan.ind.or.kr>)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 문의 : IHD (02-563-2377)

IHD, '개인정보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신설



협회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지난 2003년 12월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관리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KTF·GS홈쇼핑·엔씨소프트 등 60여개 기업이 본 교육과정을 수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발달 및 이용확산 등에 따라 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서 개인정보는 그 쓰임새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 및 관리·취급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이 자주 발생하여 개인적·국가적 피해는 더욱 커져 정보사회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개인정보의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개정·강화됨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각계 기업 개인정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를 구성, 기존 교육과정의 컨텐츠를 전면 개편하여 '개인정보관리자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 200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

○ 문의 : IHD인재교육팀 (02-563-2377)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CJ주식회사 등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로 선정



협회는 최근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이트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CJ주식회사·인크루트(주) 등 총 9개 사이트가 인증심사를 거쳐 최종심의를 통과하고 4월 7일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금번 신규 인증심사에는 총 11개 사이트가 신청하였으며, 약 3개월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 테스트, 서류심사 및 사실심사, CEO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의 최종심의를 통해 총 9개 업체가 확정됐다.

이번에 신규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를 취득한 업체(기관)는 CJ주식회사(CJ페밀리클럽, CJ브랜드샵, 뚜레쥬르, CJ뉴트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신선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학기술정보포털서비스), (주)인터넷교차로(아이크로스) 등 7개 사이트이며, 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시스템보안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는 인크루트(주)(인크루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신선물) 등 2개 사이트가 인증심사에 합격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한편 이번 심사결과에 따르면 ▲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 교육 실시 미흡 ▲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 발송시 수신 거부 방법안내 미흡 ▲ DB에 대한 개인별/등급별 접근제한 방침 마련 미비 ▲ 만 14세 미만자의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문의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사무국 (02-580-0533~4)

한국기업데이터(KED)와 통계작성 업무 공유 MOU 체결



협회는 정보통신산업 통계의 정합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17일 한국기업데이터(대표:배영식)와 'IT기업정보 공유 및 통계작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날 업무협정 체결에 따라 협회는 KED가 보유한 기술 및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IT기업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서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IT기업들의 통계조사에 따른 부담도 크게 덜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없었던 IT기업의 신설·폐업통계·거래소

·코스닥에 등록된 IT기업의 재무지표, 특허 등 IT지적재산권 관련 통계 등 자본시장 통계, 특허 등 IT지적재산권 통계 등을 생성·발표하게 돼 각종 정부정책 및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회는 1995년도에 정보통신부와 통계청으로부터 정보통신산업 통계작성기관으로 승인되어, IT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승인 통계자료를 생성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통계청과 기초자료 공유에 관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여 IT품목 분류체계 개정작업 및 IT통계 설계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 문의 : 산업정책팀 (02-3489-6910)

2006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15일 코스모타워(KT&G) 코스모아트홀에서 2006년도 정보통신부의 주요정책 및 국내 IT 주요기업의 사업전략 소개와 정보공유를 통한 교류의 장 및 경쟁력 제고 기회 마련을 위한 '2006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본 협회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화기획실·정보통신정책국·정보통신진흥국·정보통신협력국·전파방송정책국 등 정보통신부 각 실·국의 과장들이 연사로 나서 올해 정책 방향을 소개해 국내 IT기업의 전략 수립에 단초를 제시했다.

또한 정책 설명에 이은 KT·삼성전자·SKT 등 주요 정보통신기업의 사업 소개 시간은 정부와 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IT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 임직원 및 IT 관련 교수 및 연구원 등 총 5백 여명의 IT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 문의 : 대외협력팀 (02-580-0566)

IHD, 직업훈련 정보화 교육장 개관



협회는 중소기업의 인력·기술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에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하고, 4월 5일 개관식을 가졌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유일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협회는, 이미 부설 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를 통해 2월 27일 웹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양성훈련을 시작으로 IT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3개 교육과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IT전문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는 이날 최신 IT장비 및 교육시설을 갖춘 정보화 교육장을 개관함으로써 이전보다 한 층 더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재직자 향상훈련 및 신규인력 양성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은 사업주 단체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재직 근로자에게는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노동부 지원하의 무료교육 훈련과정이다.

협회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소개 및 교육신청은 홈페이지(www.ihd.or.kr)에서 하면 된다.

○ 문의 : IHD (02-563-2377)

‘명의로용 방지 서비스’ 회원 간담회 개최



협회는 4월 12일 협회 2층 고객사랑방에서 명의로용방지 서비스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선홍 부장(LGT), 최부식 부장(KTF)과 협회 배장만 기획조정본부장·김만길 팀장·오재영 팀장·전대국 과장 등이 참석해 ‘명의로용자 공동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및 ‘M-Safer 시스템 도입 관련 효과 도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명의로용자 공동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 명의로용자 공동관리필요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가 보유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 중 명의 도용자 및 이와 관련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분실 신분증을 이용하여 KTF·SKT·LGT 3사에 동시다발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을 미납할 경우 제재수단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매월 허위신고 건수가 전체 명의로용 신고건수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명의로용자를 공동관리함은 물론 가입제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명의로용DB를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명의로용 방지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이용자, 사업자 및 국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의심시 공동관리 서비스 신청 등의 적극적인 대처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명의로용으로 인한 피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명의로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명의로용 유사범죄 확산 방지와 다변화하는 명의로용 수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적으로는 불량가입(명의로용·대포폰·가개통 등) 사전차단을 통해 건전한 통신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명의로용 공동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명의로용 관련 대정부 민원 감소를 이룰 수 있다.

M-Safer 시스템 도입 관련 효과 도출 방안 : M-Safer 서비스 프로모션은 명의로용 방지 및 참여를 위한 대국민 의식 고취가 목적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M-Safer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기념품을 제작 배포하는 방안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이 프로모션의 기대효과는 범국민적 명의로용의 부당성을 알려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명의로용 방지 서비스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날은 지난 3월 16부터 4월 5일까지 진행한 M-Safer ‘1차 온라인 프로모션’ 관련 당첨자 추첨도 있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총 1만4404명이 가입(기존 1만7396명/총 3만2430명)했는데, 회의 참석자들은 전산으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았다. 1등은 대구에 사는 박오씨가, 2등은 경남, 3등은 경기와 광주 지역 가입자가 당첨됐다.

○ 문의 : 명의로용방지팀 (02-580-0572)